

# 주일 가정기도예식

(2021.1.31.)

주의봉헌축일



대한성공회

인천나눔교회

※ 금주 주일가정기도예식(주의봉헌축일) 안내

설교 직후 양초축복기도를 드립니다.

미리 기도상 위에 지난주에 만들어 놓으신 기도초를 준비해 주세요.

시작성가

주의 봉헌

기뻐하고 찬송하라

178



1 기뻐하고 찬 송하라 하느님의 약속을 모든사람 고 대하던  
 2 주의모친 마 리아가 아기에수 바칠때 성령인도 받 은노인  
 3 하느님께 바 쳐진품 고난받으 심으로 아버지의 참 된사랑



세상구원 하실분 을 법따라 봉 헌되려 성전으로 오시네  
 아기받아 안고서 '주 님구원 보 았다'고 하느님을 기렸네  
 이룩하신 예수님 거 룩함과 모 든영광 항상받으 읊소서

인도자, ● 다같이

1. 시작기도

○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와 함께 하소서.**

○ 기도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오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봉헌되셨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 2. 오늘의 시편

### ※ 시편 24편

- 1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주님의 것
  - 2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이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 3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서랴?
  - 4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이다.
  - 5 이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고  
하느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다.
  - 6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느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다.
  - 7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싸움에 용맹 떨치신 주님이시다.
  - 9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드신다.
  - 10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께서 영광의 왕, 그분이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3. 성서독서

#### 1독서

○ 1독서는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1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2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 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3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뿔을 걸러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5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이방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2독서

○ 2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2장의 말씀입니다.

11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12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13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다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칠십인역 이사 8:1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15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싸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6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느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18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복음**

- 주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과 함께 하소서.**
-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2 ¶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3 그것은 "누구든지 첫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24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25 ¶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

이 머물러 계셨는데 26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27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28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29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30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31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32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33 ¶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34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35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36 ¶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같이 살다가 37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없이 단식과 기도로써 하느님을 섬겨왔다. 38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39 ¶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40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루가 2:22-40)

○ 주님의 복음입니다.

●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 4. 설교

### 양초축복기도

† 주께서 이제 여기에

●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초에 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 기도합니다.

● 주 하느님, 참 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생을 비추셨나이다. 비오니, 이 양초를 축복하시고 이 양초가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 5. 사도신경

○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 6.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대한성공회가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130주년의 역사와 함께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코로나 상황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인류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인천나눔의집과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느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우리 가정과 각자의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기도하거나 대표가 짧게 기도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전능하신 하느님,

●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 7. 주의 기도

-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 8. 마침 기도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 **아멘**

◆ 교회 소식

1. 오늘의 예배의향

오늘은 '주의봉헌축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된 날을 기념하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날 교회와 가정을 밝힐 양초를 축복해 왔습니다.

2. 기도초 축복

설교 후 짧게 지난주에 만든 기도초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축복한 기도초는 '재의 수요일'(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도묵상에 사용합니다.

3. 생일 축하합니다.

2월 3일(수) 오현지(아그네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나눔의집 소식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나눔의집 식구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80년대 후반, 성공회 청년들과 신학생들이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고백 속에서 시작한 나눔의집이 어느덧 35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눔의집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어 가능했지요.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가난한 현장을 지켰습니다. 한 때는 활동들의 분주함과 우쭐함으로 처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눔의집이 가야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맨 앞에서 이끄셨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세상에 어둠이 짙었을 때 나눔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움츠렸을 때 나눔의집은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 곁에 다가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올해도 우리의 나눔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 운동에 함께 해주시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020년 2월 5일(연중5주일)					
	● 제1독서 : 이사 40:21-31			● 제2독서 : 1고린 9:16-23		
	● 복 음 : 마르 1:29-39			● 시편 147편		
지난 주	출석	헌금	일반헌금		실무자예배	
			월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합 계	

※ 인천나눔교회 봉헌계좌 : 새마을금고 9002-1827-5679-2 김돈회(인천나눔교회)

마감성가

# 483

## 예수님보다 더

고백과 확신



예	수	님	보	다	더	귀	한	것	은	없	네	1 이	세	상	부	귀
												2 이	세	상	명	에
												3 이	세	상	행	복



와	바	꿀	수	없	네	영	죽	을	나	대	신	돌
와	바	꿀	수	없	네	이	전	에	즐	기	던	세
과	바	꿀	수	없	네	유	후	과	핍	박	이	물



아	가	신	그	놀	라운	사	랑	잊	지	못	해	
상	일	도	주	사	랑	하	는	맘	뺏	지	못	해
려	와	도	주	섬	기	는	내	맘	변	치	못	해

후렴



세상즐 거움 다 버 리고 세상자 랑 다 버렸네



예 수 님보 다 더 귀한 것 은 없 네 예 수 밖 에 는 없 네

### 365 성서이야기 (성공회 신앙 안내)

#### ■ 출애굽기 구조(1)

이집트 -> 홍해 -> 광야 -> 시나이 -> 광야 -> 요르단 강 -> 가나안(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체험과 신앙 고백은 구약성경의 근본 바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해방 사건을 완성하는 신약성경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모세가 공주에게 구출되다 (출애 2:1-10)	이집트 피난으로 생명을 구하시는 예수님 (마태 2:13-21)
시나이에서 모세의 얼굴 변화 (출애 34:29-35)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 17:1-9)
광야 생활 40년 (출애 15:22-18:27)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예수님 (마태 4:1-2)
과월절의 어린양 (출애 12:3)	하느님의 어린양 예수님 (요한 1:29, 묵시 7:17)
바위에서 나온 물 (출애 17:1-6)	그리스도는 영적 바위 (1고린 10:1-10)
시나이 계약 (출애 24:8)	새 계약 (루가 22:14-16, 1고린 11:15)
이스라엘, 하느님의 백성 (출애 19:6)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백성 (2베드 1:9)

*“이 밤은 과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밤이로다. 이 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불러내시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밤이로다.”*

- 부활밤 예식, 부활찬송 中